

한국 신화를 통한 한국 문화의 이해

- 신과 인간의 관계 맺기를 중심으로

오세정*

<차례>

1. 서론
2. 신과 인간의 관계 양상
 - 1) 수직적 혹은 신 중심의 관계
 - 2) 수평적 혹은 인간 중심의 관계
3. 신화 속 가족관계에 나타나는 신관과 인간관
4. 결론

<국문초록>

본 논의는 한국 문화 이해를 위해 한국 신화에 나타나는 신과 인간의 관계 양상과 그 문화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신은 인간의 입장에서 숭배와 복종의 대상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건국신화에서처럼 정치적 군장이기까지 한 신에게 절대 복종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 신화에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종교적인 절대 숭배와 복종, 그리고 정치적 권력 관계의 지배와 피지배의 형태에서 벗어난, 수평적이며 인간 중심의 관계 양상을 띠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신화 일반의 특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한국 신화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신화에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가족관계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수이며 이 관계는 한국인의 신관과 인간관을 잘 보여준다.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존재론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존재이며, 신은 완전해 보이지만 결핍을 가진 존재이다. 따라서 두 존재는 상호 결핍을 통해 각각 자신의 결핍을 충족하거나 존재론적 상승을 피하게 된다. 한국의 신화에서는 신과 인간 모두 상호 관계 맺기를 통해 원래 존재에서 보다 완성된 혹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

*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나는 것이다. 그리고 보완된 두 존재가 함께 산출한 새로운 존재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 태어나고 있다. 한국 신화는 결국 이상적 인간에 대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인간에 대한 가장 낙천적이고 이상적인 관념이 응축된 인간상이 우리 신화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주제어 한국 문화, 한국 문화 교육, 한국 신화, 신, 인간, 관계 맺기, 가족관계

1. 서론

오늘날 국문학 연구 분야에서 ‘한국 문화 교육’은 새로운 논의의 중심에 서 있는 듯하다. 국문학 연구의 외연을 넓히고 깊이를 더 하는데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문화콘텐츠’에 이어 ‘한국 문화 교육’은 새로운 지분과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¹⁾ 최근 들어 한국 문화 교육에 관한 논문은 양산되고 있으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새로운 학과, 새로운 교육 과정으로 그 수요는 점차 늘고 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와 더불어 한국인 학생의 감소와 외국인 학생의 증가로 인한 국내 대학의 상황 변화가 주된 원인이다. 수요가 생기면 공급을 해야 한다. 이제 순수하게 우리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문학을 연구하는 차원을 넘어설 것을 요구받고 있다.

1)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총 2,433편의 한국어교육 학위논문이 발표되었다. 특히 2000년에 33편이었던 학위 논문이 2011년에는 631편으로 증가하였다.

최정순·윤지원,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 분석』, 『인문연구』 63집,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한국어 교육의 출발은 한국어 학습이 주된 것이었는데 최근 들어 문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 문화 교육을 한국어교육의 하위 항목이 아니라 상호 독립된 과목으로 분리하여 교육하자는 주장도 있다.

최원오, 『다문화사회와 구비문학 교육—구전신화에 내재된 초국가적 원리를 중심으로—』, 『어문학』 106집, 한국어문화회, 2009, 132쪽.

한국 문화 교육은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을 위한 교육의 일환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당연히 문자 그 자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로써 이루어지는 다양한 기호작용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 언어기호는 매끈한 지시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다양한 층위의 의미체계 속에서 약호화encode되고 해호화decode된다. 이러한 종합적 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해당 언어기호의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한국어 교육은 당연히 한국 문화 교육을 내포하고 있으며, 한국 문화 이해를 목표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텍스트로 한국 문학 만한 것도 없다.²⁾ 특히 한국 문화의 현상 차원을 넘어 문화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 이른바 전통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고전문학을 통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고전문학을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을 강조하는 최근의 논의들은 이러한 점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³⁾ 이 같은 맥락 속에서 한국 문화의 정체성 내지 전통을 잘 살필 수 있는 고전문학 중, ‘신화(神話)’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한국 문학의 뮈토스mythos 내지 원형archetype이라 할 수 있는 신화는 한국 문화 교육에 있어서 한국인의 전통적 사유방식과 문화의 원형상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자료가 될 것이다.⁴⁾

2) 문학을 통한 문화교육 혹은 한국어교육을 주장하는 이들은 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으로 “한국어 어법을 잘 보여주는 작품, 한국의 사회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작품, 한국인의 사고체계를 잘 보여주는 작품”을 제시한다.

윤여탁, 『한국어 문화교수 학습론』, 박영순 외,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2002, 196~198쪽.

3) 고전문학을 “전통적 가치관, 삶의 방식, 정신, 민속 등이 한국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한국적 삶의 이해와 표본”으로 보기도 한다.

양민정, 『동아시아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신화 활용의 문화교육 방안 연구』, 『국제지역연구』 11권 4호, 한국외국어대학 외국학종합연구센터, 2007, 149쪽.

기원을 이야기하는 서사가 바로 신화이다.⁵⁾ 기원에 관한 것들은 매우 많으며, 따라서 기원에 관한 이야기 역시 많다.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의 이야기에서, 조상의 기원, 신들의 기원, 다양한 자연물들의 기원 등 그 대상과 범위가 실로 무궁무진하다. 기원에 관한 이야기들 중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전승해왔던 공동체가 자신들의 존재론과 연결되어 특히 중요하다 하고 여기며, 근원적이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한 기원이 있다. 당연히 이러한 것들은 신성한 것이며, 신성화된 이야기로 전한다.⁶⁾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과거에 생겨난 오래전 유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존재론적 기반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과생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변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신화는 과거, 때로는 아주 먼 과거 내지 태곳적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현재’의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⁷⁾

4) 최근 한국어 교육·한국 문화 교육 관련 논의 중에는 고전문학 텍스트를 대상으로 특정한 주제를 추출하여 이것을 한국의 전통 문화라는 논리를 펴는 경향이 있다. 가령, <단군신화>에서는 ‘홍익인간’의 평등사상이 한국의 자랑스러운 고유사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상이 한국의 독창적인 것이며 오랜 전통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개별 텍스트에 나타나는 주제나 중심사상을 한국적인 것, 한국의 고유한 전통적 문화라고 말하려면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의 전개방향이 설정된다. 한국 신화가 보여주는 보편적 특성을 먼저 찾고 그것이 다른 신화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주목하는 것이다.

5) 신화에 대한 일반적 시각을 정리하면 ‘(1)신에 관한 이야기, (2)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의 기원과 질서를 설명하는 이야기, (3)신성화되는 이야기’로 개괄할 수 있다. 각각은 포함되거나 배제되는 이야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온전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국의 신화는 (2)의 성격이 강하며 이 시각으로 볼 때 한국 신화의 정체성이 잘 드러난다. (1)의 경우 그리스·로마신화와 달리 한국에서는 신들만의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3)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신화에 대한 시각 정리는 아래 참조.

장덕순 외, 『구비문화개설』, 일조각, 1993, 29쪽.

6) 한국의 전설 중에는 많은 것들이 기원에 대한 이야기이다. 특정 지역의 명칭 유래, 실존 인물의 탄생담, 자연물·인공물·민간의 풍속 등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다. 하지만 그 대상이 갖는 근원적 성격 측면에서 신화와 구분될 수 있다.

본 논의에서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한국 신화에 나타나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 주목한다. 인간의 문화에서 ‘신(神)’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궁극적 관심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신에 대한 이해가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자기이해의 방편이기 때문이기도 하다.⁸⁾ 한국의 신화는 특히 신과 인간의 관계 맺기가 서사의 주된 관심사이자 탐색 대상이다. 지상의 인간세상에서 왕이 되고자 한 신들, 지상의 인간에서 신이 된 존재들의 이야기가 한국 신화의 대종을 이룬다.⁹⁾ 한국 신화의 주요 특성이자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신과 인간의 관계 맺기의 양상과 그 문화적 의미에 대한 이해는 한국인의 전통적 사유방식, 특히 인간관이나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 초석이 될 것이다.

7) 모든 공동체에서 기원은 항상 강하게 가치 부여되어 있다. 지금의 현실을 탄생시킨 결정적인 사실과 실제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재현하면서 과거와 현재 사이의 다리를 놓는 것을, 보이어(Lucian Boia)는 ‘창설신화’ 혹은 ‘기원신화’라고 칭하였다.

루시앵 보이어, 『상상력의 세계사』, 김웅권 역, 동문선, 2000, 43~44쪽.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신화는 창조 혹은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레비-스트로스(Claud Lévi-strauss)나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일찍이 신화의 현재성 내지 통합성에 주목했다. 레비-스트로스는 신화가 과거에 의하여 현재를 설명하고 현재에 의하여 미래를 설명하는 어떤 질서가 영구히 계속됨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엘리아데 역시 신화는 세속적 시간의 파괴와 원형적 시간으로의 통합이라는 신화의 시간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신화의 속성은 신화의 보편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왕빈, 왕희자 역, 『신화학 입문』, 금란, 1980, 20쪽.

미르치아 엘리아데, 『현대의 신화』, 김병욱 외 역, 『문화학 신화』, 예림, 1998, 328쪽.

8) 이상익, 『동서사상에 있어서의 인간과 신-인간의 자기이해와 신에 대한 관념의 상관성에 대한 고찰』, 『국학연구』 3집, 국학연구소, 1990, 43쪽.

9) 신에서 인간 왕으로의 변신, 인간에서 신으로의 변신이 한국 신화의 보편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변신 양상과 의미에 관해서는 아래 글 참고.

오세정, 『한국 신화에 나타난 변신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1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67~96쪽.

2. 신과 인간의 관계 양상

1) 수직적 혹은 신 중심의 관계

신화에서 신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동물이나 식물에 깃든 영혼이나 에너지의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으며, 하늘에서 빛나는 태양이나 별이 신 자체이기도 하다. 인간의 형상을 하고 인간의 행동을 하는 신들도 있다. 어떤 형상으로 등장하든지 간에 신은 인간과 차별적이며,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으며, 인간보다 존귀하며 우월한 존재이다. 특히 세상의 기원을 신에게서 찾거나, 인간의 기원을 신에게서 찾는 신화들에서 신은 이 세상과 인간을 존재하게끔 한 창조주(創造主)로 나타난다. 창조주로서 신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고, 상대적으로 지극히 무력하고 보잘 것 없는 인간을 인도하는 신은 우리 앞에 절대자의 모습으로 존재한다. 신과 인간의 관계가 이렇듯 수직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한국 신화에서 찾아보자.

애초의 신과 인간은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양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성서』의 <창세기>처럼 우리에게도 최초의 창조를 다룬, 이른바 창세신화가 전승된다. 함경도 무가(巫歌)인 <창세가>¹⁰⁾는 우주의 창조, 지상의 창조, 인간과 문화의 창조를 다루고 있다. 애초에는 하늘과 땅이 한 덩어리로 존재했는데, 둘이 갈라지면서 미륵(彌勒)이라는 신이 등장한다. 이

10)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의 이야기인 <창세가>는 전승지역이나 구연자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세상의 창조, 인간 창조, 인간세상 차지 경험 등의 핵심 신화소들은 상당히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가장 오래된 채록본이며, 핵심 신화소를 고루 갖춰서 그 전형성을 인정받는 것으로 김쌍돌이 구연본이 있다. 이 창세신화는 창세신을 모시는 <초감제>와 같은 굿거리에서 구연된다. 창세신화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세계 창조의 원리와 세계의 질서 등 근원적 세계관에 관해서 살필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1930년에 손진태에 의해서 간행되었다. 손진태, 『조선신가유편』, 김종근 외 역, 박이정, 2012.

미륵이 지상을 비롯해 우주에 질서를 부여한 최초의 창조자이다. 미륵은 일월성신(一月星辰)을 조정하고, 물과 불의 근원을 찾고, 음식과 의복 문화를 선보이며, 마지막으로 인간 남녀를 탄생시켜 자신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한다.

천지를 구분하고 질서를 부여한 이 세계의 창조자이자 통치자인 미륵에게 도전자가 등장한다. 미륵이 다스리던 세상을 노리던 석가(釋迦)는 미륵과 내기를 하고 속임수를 써서 최종 승자가 된다. 지상의 통치자가 된 석가는 인간 무리를 한꺼번에 지상에 출현시킨다. 태초의 사건을 다룬 신화에서는 무(無)에서 유(有)로 진행되는 가장 원초적인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신화의 가장 원초적 형태가 바로 이 같은 창세 혹은 창조신화라 할 수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절대적 권능을 가진 신은 자신의 손으로 만든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라 할 수 있다. 창조자에 의해 탄생한 피조물들은 주인이 정해 놓은 질서에 따라 그 세계에 구성원이 된다.

신과 인간의 관계가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는 아니더라도 수직적 관계로 절대적 지배자와 복종하는 자의 관계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많다. 한국 신화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사례는 천상의 강력한 신격이 지상에 출현해서 인간과 지상세계를 다스리고 명령하는 것이다. 이 관계는 한국의 건국신화(建國神話)에서 공통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정치적 관계라 할 수 있다.

고조선의 건국을 다룬 <단군신화>¹¹⁾에서 환웅은 무리 3천을 이끌고 태백산에 하강해서 신시(神市)를 열고 왕위에 오른다. 그리고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직접 관장한다. 이는 환웅으로 대표되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종교적인 의미, 즉 환웅은 숭배되고 인간은 환웅에게 복종하는 전통적인 신과 인간의 관계를 넘어선다. 환웅과 인간의 관계는 실제 현실 생활

11) 일연, 『삼국유사』, 『고조선』.

속에서의 정치·사회적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북부여의 시조왕(始祖王) 해모수는 환웅과 상당히 유사한 위상을 갖고 있다. 그는 천제(天帝) 내지 천제의 아들인 천자(天子)이다.¹²⁾ 그는 마치 태양신을 연상시키듯 낮에는 인간세상에 내려와 다스리고 밤에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인물로 묘사된다.

환웅과 해모수는 천신(天神)이 직접 인간세계 강림해서 건국하고 인간들을 다스린다. 반면에 한반도 남쪽의 건국신화에서는 신군(神君)의 출현 대목에서 차이를 보인다. 신라의 시조 혁거세¹³⁾나 가야의 시조 수로¹⁴⁾는 알이나 갓난아기로 세상에 탄생해서 인간들의 손에 거두어져 양육되고 성장한 후 왕위에 오른다. 하늘에서 직접 왕의 출현을 언급하기도 하고, 신이한 기운으로 그 출현을 전조하기도 한다.¹⁵⁾ 혁거세와 수로는 기존 세계의 통치세력들에 의해서 추대된 신군이다. 환웅이나 해모수가 막강한 신성 권력을 가진 신군의 등장을 보여준다면 혁거세와 수로의 즉위 과정은 신과 인간의 관계가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수직관계가 아닌 합의와 추대에 의한 관계 맺기의 양상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정치·사회 영역에서 인간사회의 최정점에 있는 존재가 왕이다. 그 왕과 신이 동일시됨으로써 인간에게는 가장 강력한 절대적 지배자 신군이 등장하는 것이다. 인간들의 국가를 건설하고 다스리는 신군, 그 신군의 지배를 받는 백성들은 단순히 세속의 인간이 아닌 신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12)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동명왕편」.

_____, 『삼국유사』, 「북부여」.

13) 『삼국유사』, 「신라시조 혁거세왕」.

14) 『삼국유사』, 「가락국기」.

15) 「가락국기」에 따르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인간들에게 신군을 맞이할 것을 주문한다. 「신라시조 혁거세왕」에서는 상스러운 기운이 땅이 드리우고 천마가 혁거세의 알을 수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이처럼 신성한 존재의 출현으로 인간세상에 나라를 세우고 인간을 다스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국신화는 정치적 목적으로 윤색되고 재탄생한 신화이다. 따라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명령하는 자와 복종하는 자의 관계가 명시되는 것은 당연하다.

무속신화(巫俗神話)에서는 건국신화에 비해 정치적 위상이나 그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신은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존재이며, 인간은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존재로 그 수직적 관계가 드러나는 경우는 흔하다. 경기지역에 전승되는 <성주본가>¹⁶⁾에서는 천상의 신이 지상의 황우양에게 명령하여 천상의 토목공사를 시킨다. 제주도의 <이공본풀이>¹⁷⁾에서는 지상적 존재인 원강도령이 천상의 명에 따라 꽃감관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임신한 아내와 뱃속 아이를 지상에 남겨두고 하늘로 향한다. 이처럼 많은 신화에서, 신과 인간 혹은 천상의 존재와 지상의 존재는 명령하고 복종하는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신화뿐 아니라 신화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2) 수평적 혹은 인간 중심의 관계

신은 인간에게 있어서 숭배와 복종의 대상임은 자명한 이치이다. 특히 정치적 군장이기까지 한 신에게 절대 복종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우

16) 아카마쓰 지죠·아키바 다카시, 『조선무속의 연구』上,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가택신인 성조신의 내력을 이야기하는 무속신화. 흔히 ‘성주풀이’라고 칭해지는 가택신에 대한 무속신화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경기도 남부지역에 전해지는 <성주본가>이고, 다른 하나는 경남 동래지방에 전승되는 <성조신가>이다.
서대석, 『한국 신화 연구』, 집문당, 2001, 289쪽.
<성주본가>는 남자 주인공 황우양 부부가 아내를 탐낸 소진랑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여 부부가 다시 결합하는 내용이다. 남자 주인공은 성주신이 되고 그의 아내는 터주신(地神)이 되는 내용이다.

17) 안사인 구연, 『이공본풀이』,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리 신화에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종교적인 절대 숭배와 복종, 그리고 정치적 권력 관계의 지배와 피지배의 형태에서 벗어난, 다소 수평적인 양상을 띠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신화의 일반적 특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다시 말해 한국 신화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건국신화에서는 일반적으로 천신 계통의 왕이나 천상 혈통의 왕재(王才)를 가진 이들이 등장하고, 인간들은 그들에게 절대 복종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주몽신화>에서 그 양상이 사뭇 다르다. 이 신화에서는 신, 혹은 신적 존재로 볼 수 있는 자는 주몽과 유화이다. 금와가 다른 이야기에서는 천명에 의해 출현한 신적인 존재로 나타나지만¹⁸⁾, <주몽신화>에서는 금와가 특별히 신적 능력을 소유한 신군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또한 그의 왕자들은 주몽과 대비되는 분명한 인간 존재들이다. 유화가 수신(水神)인 하백의 딸이지만, 하백에게 쫓겨나 결식하게 되고, 이후에 금와에게 붙잡혀 별궁에 갇힌다. 주몽은 일광(日光)에 감응하여 탄생하고, 주문을 외워 도강(渡江)하는 등 여러 가지 신이한 행적을 계속해서 보이며 신적 존재임을 드러낸다. 하지만 그가 속한 인간세계에서 주몽은 신적 존재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주몽은 금와 밑에서 마구간지기 노릇을 하며, 결국 금와의 아들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다. 다른 신화에서와 달리 <주몽신화>에서는 신적 존재들과 인간들과의 관계가 역전되어 있는 것이다. 신적 존재가 인간적 존재에게 오히려 지배당하는 형국이다. 또한 주몽과 금와의 왕자들은 왕위를 다투는 경쟁관계로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주몽이 부여를 탈출하여 졸본지역에 와서도 계속된다. 졸본지역의 선주(先住) 세력인 비류왕 송양과 주몽이 다투게 되는데, 송

18) 『삼국유사』, 『동부여』에서는 천명에 의해 해부루가 얻은 천손 내지 금빛 개구리 형상을 한 신성한 존재로 나온다.

양은 주몽에게 쉽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한다. 여러 내기와 싸움에서 번번이 주몽이 승리함에도 불구하고, 주몽이 하늘에 청해 비를 내리게 해서 나라가 물에 휩쓸릴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송양이 항복한다.¹⁹⁾ 주몽이 신성성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송양은 끝까지 주몽과 경합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신적 존재와 인간과의 관계가 투쟁적인 관계, 경쟁 관계로 나타나는 점은 <주몽신화>에서 핵심적 요소를 이루고 있다. 이는 주몽이 왕이 되기 이전까지 지상의 인간들에게 신격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 일 것이다. 막강한 힘을 과시하며 천상에서 지상으로 강림한 신들이나, 하늘의 명령이나 계시가 있는 후 인간세상에 신이한 형태로 등장한 신들과 주몽은 구별된다. 주몽의 태생적 자질, 혹은 그가 인간들에게 보여준 인간들과 ‘다름(異)’이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신화에서 인성과 뚜렷이 구별되는 신성 내지 신이성이 항상 인간으로부터 복종과 숭배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닌 것이다.

막강한 절대자 신으로 군림하는 존재에게 인간이 직접적으로 반(反)하는 경우도 있다. 제주도의 <천지왕본풀이>는 인간세상과 지옥세상을 맡아 다스리는 소별왕과 대별왕의 탄생과 인세 차지 경쟁을 다룬 창세신화인데, 전승본에 따라서는 천지왕과 수명장자의 갈등을 주되게 다룬 것도 있다.²⁰⁾ 천신인 천지왕이 지상의 인간 수명장자가 폐악하여 악행을 일삼

19) 주몽이 졸본지역으로 이주해 와서 비류왕 송양과 경쟁을 하는 대목은 『삼국유사』에는 없는 대목이다. 이 대목은 『삼국사기』와 『동명왕편』에 전하는 내용인데, 후자가 더 상세하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은 『동명왕편』의 내용을 따른다.

20) 이 신화는 <창세가>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승을 차지하기 위해 두 신적 존재가 경합을 하며, 속임수를 쓴 자가 승리하여 이승을 차지하게 된다는 점이 그러하다. <창세가>에 등장하는 미륵과 석가가 원시상태에서 출현한 최초의 신이라면 대별왕과 소별왕은 이미 인간세상과 인간존재가 생긴 후에 태어난 존재이며, 그들의 출생과 관련하여 부모대 이야기가 전한다는 점이 주된 차이점이다. 천지왕과 수명장자의

자 이를 징치하려고 지상으로 온다. 수명장자는 “천왕께 향하여 말하기를, 이 세상에 날 잡아 갈 자가 있겠는가?”라며 오만함의 극치를 보인다. 분개한 천지왕은 직접 일만 군사를 거느리고 수명장자를 공격했지만 실패하고 만다. 천지왕은 수명장자 징치에 실패하고 돌아가는 길에 지상에서 만난 인간 여성에게서 대별왕과 소별왕 두 아들을 얻는다. 결국 소별왕이 수명장자를 징치하고 인간세상의 질서를 바로잡는다. 천상 절대신의 권위와 명령에 불복하고 정면 대결을 펼치는 인간의 등장은 다른 나라 신화에서는 결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신의 질서나 명령에 반하는 인간은 신화에 자주 등장하지만 절대 권능을 가진 천신이 직접 인간을 징치하려 하는데 실패하는 경우는 더욱 찾기 어렵다.

신과 인간이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신과 인간이 직접적인 호혜관계를 맺는 경우는 우리 신화에서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이다. 지배자로서의 모습뿐 아니라 신들은 선한 인간을 도와 주거나 위기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 조력자나 시혜자의 모습으로 자주 등장한다. 이 같은 신의 모습은 대표적으로 <바리공주>²¹⁾에서 잘 드러난다. <바리공주>에 등장하는 최고의 신격인 석가세존(釋迦世尊)이 바로 인간을 구원하고 도와주는 인물이다. 아들이기를 바랐다가 일곱째마져 딸을 낳자 실망한 바리공주의 부왕(父王)은 딸의 얼굴도 보지 않고 아이를 버릴 것을 명한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황천강에 유기된 바리공주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준 인물이 바로 석가세존이다. 석가세존은 이 이야기에서 최상위의 신격으로, 바리공주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바리공주가 약수를 구하기 위한 공간 이동을 할 때 그녀를 도

대립을 잘 묘사한 전승본으로는 박봉춘 구연본이다.

박봉춘 구연, 『천지왕본풀이』, 아카마쓰 지조·아키바 다카시(1991), 위의 책.

21) 문턱순 구연, 『말미(바리공주)』, 김태곤, 『한국무가집1』, 집문당, 1992.

외준다. 또 석가세존의 명에 의해 바리공주를 거두어 양육한 비리공덕부부나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수를 소유한 무장승 역시 인간적 존재가 아닌 신적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석가에 비하면 격이 낮은 신격이라 할 수 있지만, 이들 신적 존재들은 시종일관 바리공주의 탐색 여정에서 주요한 원조자 역할을 하고 있다.

신은 바리공주와 같이 자신을 버린 부모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선한 존재를 돕는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악한 인간을 벌하는 심판자의 역할도 한다. 호남 지역에 전승되는 <칠성풀이>²²⁾이나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문전본풀이>²³⁾에서는 전설 소생과 후실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칠성풀이>에서 칠성님의 후실부인은 전실부인의 소생을 죽이려고 간악한 음모를 꾸민다. 전설의 소생 7형제를 제거한 줄 알고 옥녀부인이 잔치를 열었는데, 7형제가 다시 그 잔치에 모습을 드러내자 옥녀부인의 피병이 재발한다. 결국 옥녀부인과 아들 7형제가 칼자루와 칼날을 물고 하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심판을 끝으로 옥녀부인은 신벌(神罰)을 받아 죽어서 짐승이 되고 서사의 중심 갈등이 해소된다. 여기서 신은 인간 세계의 잘잘못을 따지고, 악을 징치하는 준엄한 심판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전본풀이>에서도 악행을 저지른 후실은 신에 의해 응징된다.

신과 인간의 관계가 절대 군림과 복종의 관계가 아닌 수평적 성격을 띠며 호혜적임이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신과 인간이 가족관계를 맺는 것이다. 한국 신화에서는 신과 인간이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건국신화에서 신과 인간의 가족관계 형성이 잘 나타나는 것은 <단군신화>와 <수로신화>를 들 수 있다. <단군신화>에서 환웅은 강력한 신군의 위상으로 인간세계에 강림해 신시를 열어 인간을 통치했다.

22) 이어인년 구연, 『칠성굿』, 앞의 책.

23) 안사인 구연, 『문전본풀이』, 현용준, 앞의 책.

하지만 환웅은 지배자 혹은 통치자로서뿐 아니라 지상의 피지배자들을 원조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꿈과 호랑이가 인간으로 화하고자 했을 때 이를 성취시켜 주며, 응녀가 잉태하고자 소원하자 스스로 인간으로 화해 응녀의 욕망을 충족시킨다. 고조선의 개창자 단군은 이처럼 신과 인간의 결합을 통해 탄생한 신성한 인간이다. <수로신화>에서는 천상에서 강림한 수로와 지상의 공주인 허황옥의 신성혼(神聖婚)이 중요하게 묘사된다. 수로의 배우자인 허황옥은 아유타국(阿踰陀國)의 공주로 분명 인간이지만, 신의 명에 따라 수로를 찾아와 결혼한다.²⁴⁾ 흥미로운 점은 다른 건국신화의 여성 주인공과 달리 결혼 과정에서 주체적 성격이 부각된다는 점이다. 허황옥은 가야에 당도하자 수로에게 자신을 마중 나올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등 부부관계에 있어서 수평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신이 가장(家長)이며 그 배우자가 인간인 가족 관계는 무속신화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천상 최고신인 천지왕이 그의 배필로 아름다운 인간 여성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 대별왕과 소별왕이 이승과 저승을 지배한다. <제석본풀이>²⁵⁾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뚜렷하게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야기에 등장하는 남성 주인공인 스님은 인간 존재와 구별되는 신성 존재임은 확실하다. 이에 반해 당금애기와 그 가족들은 분명 인간이다. 여기서 신은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 여성인 당금애기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녀를 취한다. <바리공주>의 여성 주인공 바리공주의 결혼도 이와 유사하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약수를 구하러 간 바리공주는 탈속의 세계, 신성한 공간에

24) 허황옥의 부모가 꿈에 황천상제(皇天上帝)의 명을 듣고 허황옥이 수로와 결혼해야 함을 인지한다. 그리고 허황옥은 신성한 존재인 수로와의 결혼을 위해 예물을 구하러 여행을 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허황옥이 평범한 인간 존재가 아니라 신성한 결혼식의 주체로서 위상을 갖추는 과정이다.

25) 박월례 구연, 『시준곳』, 김태곤, 앞의 책.

살고 있으면서 생명수를 소유한 무장승이라는 신이한 존재와 혼인한다.

3. 신화 속 가족관계에 나타나는 신관과 인간관

한국 신화에 나타나는 신과 인간의 관계 양상은 신화의 일반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신과 인간의 수직적 관계뿐 아니라, 수평적이며 인간 중심의 관계 또한 잘 나타난다. 특히 한국 신화에서 중요한 신-인 관계는 가족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이며, 이는 한국 신화에서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주요한 특징이다. 한국의 신화에서 신들끼리 결합하는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신들끼리의 결혼 사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화에서 주된 이야깃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혁거세신화>에서는 천손인 혁거세와 계룡(鷄龍)에서 잉태된 알영이 결합하는데, 이는 신과 신의 결혼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천상의 신격과 지상의 인간 내지 비신격(非神格)이 결합하는 형태가 한국 신화의 신성혼의 보편적인 양상이다.²⁶⁾

우리의 최초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에서, 환웅이 인간과의 가족 관계를 맺는 것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환웅은 용녀와 결혼하는데, 이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부부관계로 표현된 것이다. 또한 용녀가 낳은 인간의 왕 단군을 통해서 부자관계가 수립된다. 가족은 인간 사회 집단의 가장 최소의 단위체로, 인간 공동체 생활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국가나

26) 해모수와 유화의 결합은 신과 신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해모수가 유화를 버림으로써 유화가 금와의 별궁에 갇히게 된다. 유화는 강신(江神)의 딸이자 일시적으로 천자의 배우자였지만, 결국 아버지와 남편의 두 세계 어디에도 편입되지 못하고 추방된다. 이는 신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지상적 존재로 강등되었음을 의미한다. 유화의 추방과 감금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해모수와 유화의 결합은 혁거세와 알영과 같은 신과 신의 결합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민족의 개념이 확대된 가족 개념으로 흔히 쓰이는 것은 공동체의 일체감 강조를 위해서이다. 환웅은 새로운 국가를 세우고 인간을 다스리고 교화하고,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도움을 주며, 또한 가족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공동체의 완성을 꾀하고 있다. 절대적 권능을 가진 신이 인간과 가족관계를 형성하여 세계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천지왕본풀이>에서도 재차 확인할 수 있다.²⁷⁾ 이러한 신과 인간의 관계는 결국 신과 인간의 결합을 바탕으로 세계의 재편 내지 완성이라는 의미가 도출된다.

절대 권능의 신이 직접 출현하지 않는 신화에서도 신을 아버지로 둔 아들들은 많다. 건국신화에서 환웅과 해모수는 애초부터 천상의 존재였기 때문에 혈통의 출처를 따질 필요가 없다.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국의 주인공들은 그들의 부계(父系) 혈통이 천신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단군신화>도 결국 단군의 아버지가 천신인 환웅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이야기이다. <주몽신화>는 햇빛으로 잉태된 주몽이 자신의 아버지가 해모수라는 점을 강조하여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 <혁거세신화>와 <수로신화>에서는 주인공들의 아버지가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만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존재이며 이들의 원출생지는 천상임을 통해 천손임을 강조하고 있다. 건국신화에서는 왕가의 혈통을 천신에서 비롯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같은 신과의 가족관계 맺기를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건국시조가 신 내지 천손으로 설정함으로

27) 박봉춘 구연본에 따르면 천지왕이 실패한 수명장자 징치를 그 아들인 소별왕이 완수한다. 이는 천지왕과 인간 여성의 결합으로 탄생한 새로운 왕이 전대 왕이 이루지 못한 과업을 성취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대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질서를 확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군신화>에서 환웅과 그의 신시가 있음에도 한반도 최초의 국가는 단군의 조선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천지왕의 아들과 환웅의 아들이 갖는 위상과 의미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서 이후 왕가는 천손 가계(家系)를 형성하는 것이다.

무속신화의 주인공들은 왕조의 시조왕과 같이 정치적 위상을 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신으로 둔 아들들이 다수 등장한다. <제석본풀이>의 3형제, <칠성풀이>의 7형제, <바리공주>의 7형제, <이공본풀이>의 할락궁이²⁸⁾ 등이 모두 인간 어머니와 신인 아버지를 두고 있다. <바리공주>의 7형제를 제외하면 이 신의 아들들은 모두 아버지를 탐색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석본풀이>는 신격인 스님이 인간인 당금애기를 임신시키고 떠난 경우이고, <칠성풀이>는 칠성님이 전실부인을 소박하여 처자식을 지상으로 내쫓은 경우이고, <이공본풀이>는 할락궁이는 신직(神職)을 맡아 천상으로 갔지만 부인과 아들은 지상에 남는 바람에 부자(父子)가 분리된 경우이다.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찾는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이며 사회적 지위와 존재론적 위상이 정립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를 찾기 이전에는 천덕꾸러기, 후레자식으로 취급받기도 했으나 아버지를 찾는 순간 그들은 신성한 존재의 아들로서 그에 걸맞은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그들 역시 신이 된다.

신과 인간의 가족관계에서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신성한 존재와 혼인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수립한다. 신의 배우자가 된 여성들은 존재론적 위상이 상승된다. 신의 배우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맞은 존재론적 위상을 획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자식들의 도움을 받는다. <칠성풀이>를 보면, 천상적 존재인 칠성님에게 소박을 받은 전실부인은 결

28) <이공본풀이>에서 인간과 구별되는 신은 원강도령이다. 원강도령은 인간적 존재였지만 신의 선택을 받아 신격으로 좌정되는 인물이다. 다시 말해서 원강도령은 애초에 신이 아니라 인간이었지만 천상 세계로 가면서 신이 된다. 이에 반해 지상에 남겨진 그의 아내와 뱃속의 아이는 여전히 인간으로 남아 있다. 원강도령이 천상으로 가 신격이 되었지만 그의 아내 원강아미는 인간으로 생을 마감하며, 그의 아들 할락궁이는 역시 아버지를 찾기 전까지 인간이었다.

국 지상에서 죽음을 맞는다. <이공본풀이>의 원강아미 역시 남편을 천상에 떠나보내고 난 뒤 만년장자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다. <제석본풀이>의 당금애기도 남편이 임신만 시키고 떠나자 죽을 위기에 빠진다. 죽었던 여성 주인공들은 모두 자식들에 의해서 회생하며, 자식들에 의해 남편과 재회한다.

존재론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성을 가장으로 해서 형성된 부부관계에는 가부장제(家父長制) 질서의 논리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결혼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신과 인간의 관계로 등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경우 이야기의 전체 흐름이 여성의 복종과 희생이 남성적 가부장 중심의 가족의 결합과 완성을 이루게 하고, 이 과정에서 여성의 삶의 방향과 운명이 가부장적 논리 속에서 결정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신화에서 인간과 가족관계를 맺는 남성 신들은 강력한 권능을 소유한 신의 위상보다는 무언가 결핍되고 불완전한 존재로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성성과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 주몽이 지상의 인간들에게 대접을 못 받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창조자인 신에게 인간이 전면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창세가>에서 석가에 의해 탄생한 인간 중 두 명은 비록 자신이 석가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지만, 석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영원함을 상징하는 자연물이 된다.²⁹⁾ 이들은 자신

29) <창세가>에서는 최초의 창조신인 미륵에 이어 새로운 신이 등장하여 창조와 통치를 담당한다. 속임수를 써서 미륵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석가는 자신의 무리를 수천을 탄생시키고 그들을 가르치고 이끈다. 이 신화에서 창조자이자 통치자인 신은 음식문화를 인간들에게 가르치는데, 미륵이 생식이었다면 석가는 화식(火食) 문화를 선보인다. 그런데 인간 무리 중 두 명이 석가의 이러한 화식 문화에 반발하여 화식을 거부하고 굶어 죽는다. 화식은 나무와 같은 재료를 태워서 발생한 에너지로 음식 재료를 익혀 먹는 것으로, 주어진 1차적 자연 재료를 인위적으로 2차 가공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인위, 즉 자연과 구별되는 인간의 문화 내지 문화적 행위를 의미한다. 자연

을 창조한 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피조물인 인간의 이상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운명과 싸우는 인물이라 볼 수 있다. 신화 일반론에서 피조물의 행위로 보기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제주도의 <세경본풀이>³⁰⁾에서는 존재론적으로 우위에 있는 신에 비해 훨씬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 인간이 있다. 천상의 도령을 사랑한 인간 여성 자청비는 그와 결혼하기 위해 갖은 난제를 모두 극복하는 영웅적 면모를 보인다. 심지어 남편 대신 전쟁에 나서 난을 평정하는 위용까지 보인 후 당당히 천상 세계의 존재로 인정받는다. 그런데 자청비는 신들의 천상세계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지상에서 농경신의 역할 맡기를 자청한다. 이렇듯 한국의 신화에서 애초의 신들은 창조신이건 천신이건 어딘가 불완전한 존재이며, 인간은 오히려 신들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그들이 수행하지 못하는 과업을 완수하는 존재로까지 나타난다.

한국 신화의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알 수 있는 신관(神觀)과 인간관(人間觀)은, 요컨대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존재론적으로 상승한다는 점, 신은 완전해 보이지만 결핍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두 존재는 상호 결합을 통해 각각 자신의 결핍을 충족하거나 존재론적 상승을 피하게 된다. 신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과 호혜관계를 맺어야 하며, 인간과 함께 있어야 완전한 존재가 된다. 인간은 신과 결합을 통해 자신의 존재론적 변

과 인위를 구별하게 한다. 이 같은 인간의 화식은 다른 존재나 자연물을 파괴함으로써 생기는 에너지에 대한 사용의 독점을 의미한다. 이 화식은 자연에서 인간을 분리시키며, 인간이 자연에서 분리되는 순간, 순환과 영원을 속성으로 가지는 자연과 대비되는 유한적인 존재로서 인간 자신을 인식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바위와 소나무로 변신한 두 종이 '성인'이 되겠다고 천명한 것은 유한적 존재가 아닌 무한적인 존재, 즉 자연적인 존재가 되겠다는 의미이다.

오세정, 『<창세가>의 원형적 상상력의 구조와 의미체계』, 『구비문학연구』 20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364~365쪽.

30) 박봉춘 구연, 『세경본풀이』, 아카마쓰 지조·아키바 다카시(1991), 위의 책.

신을 성취한다. 이처럼 한국 신화에서 신과 인간은 개별적 존재가 아니다. 건국신화에서는 애초의 신이 지상에 내려와 군장이 되고자 한다. 이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시조왕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통치하는 완전체로서의 존재를 의미한다. 그렇지만 지상에서 인간의 왕이 된 자들은 지상을 대표하는 인간과 결혼을 통해 보다 완성된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 건국신화에서는 신군들이 <혁거세신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간 여성들과 결합한다. 인간에서 신으로 화하는 무속신화의 주인공들의 공통점은 인간을 위하는 존재, 인간세상에 이익을 주는 존재가 되기 위해 신이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무속신화의 신들은 인간과 인간세계와 결합될 때 비로소 존재론적 정체성을 확보하게 되고 신성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신과 인간의 관계가 한국의 경우처럼 호혜적이거나 상호의존적인 경우는 찾기 어렵다. 신화학이나 종교학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으로 인간들이 신성 존재에게 제물을 바치며, 그 보상을 받는 관계를 들 수 있다.³¹⁾ 이러한 인간의 ‘바치는 행위’는 하나의 의무로서 인간이 지닌 신에 대한 최초의 부채의식에 비롯된 것이라고 많은 사회학자, 종교학자, 신화학자들이 입을 모은다. 흔히 종교학에서 ‘성스러운’ 것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피조물적 감정’이 따른다고 본다.³²⁾ 히브리의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처럼, 피조물인 인간은 자신을 창조한 절대자에 대한 원초적 부채감이 존재하는 것이다. 절대적 창조신이 등장하지 않는 신화체계에서도 이 같은 부채의식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우주가 신성한 태초의 존재의 희생 속에서 분화되었다는 이른바 신체

31) 테일러는 인간과 신성 간의 이러한 상호작용을 증여이론gift theory으로 정리했다. Edward B. Tylor, *Primitive Culture*, vol.2, Harper, 1958, pp.461~462.

32) 루돌프 오토, 『성스러움의 의미』, 김희성 역, 분도, 1987.

화생(身體化生) 신화는 범세계적 분포를 보인다.³³⁾ 이 신화에는 세계의 각 개체들이 분화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전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가 있었으며 이 태초의 존재가 폭력적 희생을 통해 나누어준 생명력을 전이 받은 결과 대자연의 개체들이 탄생한 것이다.³⁴⁾ 이같은 신화에서도 인간은 태초의 존재에 대해 원초적인 빛을 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신화에서는 인간은 신이나 태초의 존재에 대해 이러한 부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부채의식의 부재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상호 주체적이며 호혜적일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존재론적 열위의 존재는 상위의 존재와 합일을 추구하여 존재론적 상승을 꿈꾸게 마련이다. 이러한 욕망과 사고는 동양에서 흔히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사유로 표출된다. 중국의 천일합일설의 출발점은 하늘과 사람이 따로 존재하지만 사람의 본질인 성(性)과 하늘의 명(命)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성과 명을 자각함으로써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성리학의 세계에서는 천인합일을 위해 수행이, 종교적 세계에서는 신에 대한 복종과 희생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하늘과 사람의 사이가 없다고 하는, 즉 애당초 하늘과 사람이 하나라는 ‘천인무간(天人無間)’의 사유가 강하다.³⁵⁾ 따라서 신과 인간의 위계적 차이나 구분이 약화·무화

33) 신체화생 신화로 대표적인 것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반고>, 북유럽의 <이미르>, 이란의 <태초의 황소와 가요마르드>, 바빌로니아의 <티아마트>, 인도의 <푸루샤> 등을 들 수 있다.

이호창, 『신화를 통해 살펴본 신과 인간과 대자연의 신성한 관계—미르체아 엘리아데의 창조적 신화 해석을 토대로—』, 『동유럽발칸연구』26권 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동유럽·발칸연구소, 2011, 92~96쪽.

34) 앞의 글, 98~99쪽.

35) 이기동, 『목은의 사상과 한국유학의 세 흐름』, 『한국사상과 문화』 25집, 한국사상문학회, 2004, 199쪽.

성리학에서뿐 아니라 고대 신화체계에서도 중국과 한국은 하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이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단군신화>의 인세관념은 중국 주나라 시기의 천

되며 그 관계도 주종관계나 절대적 수직관계가 되기 어렵다.

한국 신화에서 인간의 원출처를 지상이 아닌 천상으로 상징하는 사례, 신성의 개입으로 새롭게 탄생한 인간세상의 대표자가 신과 인간 사이에서 출생한다는 점, 대부분의 신화에서 신과 인간이 직접적인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을 유지한다는 점 등은 인간 자체가 신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신화의 많은 주인공들이 애초에 인간이었다가 과업을 마치고 신으로 변신하는 것이 핵심 주지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근원적 자질이 신성이라는 점은, 다르게 말하면 신이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한국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 중 신성과 인성을 뚜렷이 구별할 수 없는 복합적이거나 모호한 성격을 가진 자가 유난히 많다.³⁶⁾ 결국 이 같은 신과 인간의 관계는 신이 절대적 지위를 가진, 저쪽 세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쪽 세계의 인간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존재라는 점을 보여준다. 타자화(他者化)된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 내재화된 신, 이 같은 신관은 인간의 존재론적 범위와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 신화에서 찾을 수 있는 이상적이고 완전한 인간은 신성과 인성을 골고루 겸비한 존재로 표상된다. 신화의 주인공들이 대부분의 경우가 신

하관념과 다소 차이가 있다. 천신이 천손을 강림해 준다는 것은 천인무간의 의식의 발현이고, 천명에 의해 천자가 된다는 의미는 천인합일적 사유체계에 따른 것이다. 서경요, 『한국설화문학에 나타난 가족윤리-단군설화를 중심으로』, 『유교문화연구』 14집,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2008, 132쪽.

36) 가령, 바리공주의 아버지는 신약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인간적 존재인데, 완쾌되고 나서 바리공주와 그 가족을 신격으로 좌정하는 신적 능력을 발휘한다. 황우양은 하늘의 존재들보다 뛰어난 토목공사 실력을 갖고 있으며, 칠성님은 인간들과 구별되는 다른 공간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무속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비(非)인성을 가진 존재들이 많이 출현하는데, 이는 신화체계 속에서 신격의 위상이 다양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존재론적으로 분명 상위의 존재이지만 불완전한 신, 열위의 존재이지만 변신하고 성숙할 수 있는 인간, 이 둘의 결합은 가장 이상적이고 완전한 존재인 새로운 ‘인간’을 탄생시킨다. 이러한 인간관은 다른 신화에 비해 상당히 이례적이며 한국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히브리 신화에서는 전능한 신이 자신의 형상을 본 떠 인간을 만들었지만 신을 거역한 불순한 인간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타락의 나락으로 빠지고 만다. 그리스·로마 신화에서는 악의 본성과 신적 본성을 동시에 지닌 양면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불완전한 대립체로 남아 있다.³⁷⁾ 이처럼 서구의 대표적 두 신화체계에서 인간에 대한 기본 이해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많은 경우 다른 신화체계에서 인간의 본성을 이렇듯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대립체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신화에서는 불완전한 신성과 인성이 관계 맺고 결합하여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 인간이 탄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4. 결론

이상에서 한국 신화에 나타나는 신과 인간의 관계 맺기 양상과 그 속에

37) 오르페우스적 창조신화에서 제우스에게 적대적이던 티탄들은 제우스와 페르세포네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디오니소스를 유괴해서 먹어버린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우스는 티탄들을 벌하고 타고 남은 티탄들의 재로 인간을 만든다. 인간은 티탄의 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티탄이 저지른 죄에서 연유하는 악의 본성과 티탄이 먹은 디오니소스에게서 비롯된 신적 본성을 동시에 지닌 양면적 존재가 된다.

H. Diels & W. Kranz, *Die Fragmente der Vorsokratiker*, Wiedmann, 1971, 김윤애, 『한국 창조신화와 그리스 창조신화에 있어서 자연-신-인간의 문제』, 『비교민속학』 30집, 비교민속학회, 2005, 194~195쪽에서 재인용.

내포되어 있는 문화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신은 인간의 입장에서 숭배와 복종의 대상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건국신화에서처럼 정치적 군장이기까지 한 신에게 절대 복종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 신화에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종교적인 절대 숭배와 복종, 그리고 정치적 권력 관계의 지배와 피지배의 형태에서 벗어난, 수평적이며 인간 중심의 관계 양상을 띠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신화 일반의 특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한국 신화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신화에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가족관계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수이며 이 관계는 한국인의 신관과 인간관을 잘 보여준다.

신화에서 표상된 신과 인간의 가족관계는 신이 남성이고 인간 여성이 배우자가 되어 신과 인간의 상하 관계가 가족 내 가장과 배우자의 관계로 형성된다. 비록 가부장제 질서 속에서 신과 인간의 위계는 여전히 상하로 나누어지지만, 가족관계에 함축된 문화적 의미는 다른 신화체계에서는 찾기 어려운 독특한 것이다. 신이 인간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 권능의 발현이나 욕망의 충족을 의미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해서 세계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신의 배우자로서 그리고 신의 자식으로서 존재론적 위상을 재정립한다.

한국 신화의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알 수 있는 신관과 인간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존재론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존재이며, 신은 완전해 보이지만 결핍을 가진 존재이다. 따라서 두 존재는 상호 결합을 통해 각각 자신의 결핍을 충족하거나 존재론적 상승을 꾀하게 된다. 한국의 신화에서는 신은 인간과 관계를 맺음으로 보다 완전한 존재가 된다. 인간 역시 신과 관계 맺음으로써 애초의 존재에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이렇게 보완된 두 존재가 함께 산출한 새로운 존재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 탄생한다. 한국 신화는 결국 이상적 인간에

대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인간에 대한 가장 낙천적이고 이상적인 관념이 응축된 인간상이 우리 신화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신화에서 찾을 수 있는 신과 인간의 관계는 한국인의 다양한 사유체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 내세관, 존재론, 생사관, 종교관 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효할 것이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 문화 교육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같은 이 같은 신화적 사유방식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일 연, 『삼국유사』
아카마쓰 지조·아키바 다카시, 『조선무속의 연구』上,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1~505쪽.
손진태, 『조선신가유편』, 김종근 외 역, 박이정, 2012, 1~383쪽.
김태곤, 『한국무가집1』, 집문당, 1992, 1~391쪽.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1~506쪽.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진』, 각, 2007, 1~859쪽.
- 루돌프 오토, 『성스러움의 의미』, 길희성 역, 분도, 1987, 1~278쪽.
루시앵 보야아, 『상상력의 세계사』, 김용권 역, 동문선, 2000, 1~289쪽.
왕 빈, 『신화학 입문』, 왕희자 역, 금란, 1980, 1~232쪽.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93, 1~319쪽.
김윤애, 「한국 창조신화와 그리스 창조신화에 있어서 자연-신-인간의 문제」, 『비교민속학』 30집, 비교민속학회, 2005, 171~201쪽.
미르치아 엘리아데, 「현대의 신화」, 김병욱 외 역, 『문학과 신화』, 예림, 1998, 320~336쪽.
서경요, 「한국설화문학에 나타난 가족윤리-단군설화를 중심으로」, 『유교문화연구』 14집,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2008, 123~135쪽.
양민정, 「동아시아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신화 활용의 문화교육 방안 연구」, 『국제지역연구』 11권 4호, 한국외국어대학 외국학종합연구센터, 2007, 147~169쪽.
오세정, 「<창세기>의 원형적 상상력의 구조와 의미체계」, 『구비문학연구』 20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347~384쪽.
_____, 「한국 신화에 나타난 변신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1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67~96쪽.
윤여탁, 「한국어 문화교수 학습론」, 박영순 외,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2002, 191~208쪽.
이기동, 「목은의 사상과 한국유학의 세 흐름」, 『한국사상과 문화』 25집, 한국사상

문화학회, 2004, 193~215쪽.

이상익, 「동서사상에 있어서의 인간과 신—인간의 자기이해와 신에 대한 관념의 상관성에 대한 고찰」, 『국학연구』 3집, 국학연구소, 1990, 1~46쪽.

이호창, 「신화를 통해 살펴본 신과 인간과 대자연의 신성한 관계—미르체아 엘리아데의 창조적 신화 해석을 토대로—」, 『동유럽발칸연구』 26권 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동유럽·발칸연구소, 2011, 81~110쪽.

최원오, 「다문화사회와 구비문학 교육—구전신화에 내재된 초국가적 원리를 중심으로—」, 『어문학』 106집, 한국어문학회, 2009, 131~147쪽.

최정순·윤지원,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 분석」, 『인문연구』 63집,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53~90쪽.

Edward B. Tylor, *Primitive Culture*, vol.2, Harper, 1958, 1~539쪽.

ABSTRACT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through the Korean Mythology
- focusing on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human being

Oh, Se-jeong

It is possible a better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to research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human being in the mythology of Korea. It's no wonder that human beings submit to God and worship God in general mythology. However, many different cas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human being appear in the Korean myths. It is an important and main characteristics of Korean mythology that God and human beings are equal and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In particular, it is a very important feature that God and human being connects the family relationships.

We can see what the view of God and human being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human being are as follows. Human beings are imperfect existence, however they have a possibility to get rising ontologically. God seems to be a perfect existence, actually has a deficiency. Therefore God and human being try to be brought together, so they meet the deficiency and achieve ontological rising. God and human being can be born again new and more perfect beings by building a relationship of family. The new human born between God and human being is the most ideal being. Korean myths can be said that the story of ideal human being.

Key Words Korean culture, Korean culture education, Korean mythology, God, humans being, building a relationship, family relationship

논문투고일 : 2014. 3. 31
심사완료일 : 2014. 5. 28
게재확정일 : 2014. 6. 2